

오스트리아 AUSTRIA

모자보건증 관련 제도 개혁

곽 서 회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참고자료

- Gesundheitsportal Österreichs (오스트리아 공공보건 정보 포털) (2022) "Mutter-Kind-Pass", <https://www.gesundheit.gv.at/leben/eltern/mutter-kind-pass.html> (접속일: 2022.12.16.)
- News At (2022.12.3) "Vom Mutter-Kind-Pass zum digitalen Eltern-Kind-Pass", <https://www.news.at/a/mutter-kind-pass-eltern-kind-pass> (접속일: 2022.12.16.).
- Stadt-Wien (비엔나-시 정보 포털) (2022) "Mutter-Kind-Pass wird zum digitalen Eltern-Kind-Pass", <https://www.stadt-wien.at/wien/soziales-buerokratie/mutter-kind-pass-wird-eltern-kind-pass.html> (접속일: 2022.12.16.).
- The Local Austria (2022.11.16) "What is Austria's Mutter-Kind-Pass and how is it changing?", <https://www.thelocal.at/20221116/what-is-austrias-mutter-kind-pass-and-how-is-it-changing> (접속일: 2022.12.16.)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모자보건증(Mutter-Kind-Pass) 제도를 일부 개혁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연방정부의 수잔 라브(Susanne Raab) 여성가족통합미디어 장관(Federal Minister for Women, Family, Integration and Media), 그리고 요하네스 라우흐(Johannes Rauch) 보건부 장관(Federal Minister of Health)이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자보건증을 받는다. 이는 노란색 여권 크기의 소책자 형태로, 연방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에서 발급한다. 모자보건증 제도는 1974년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모자보건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성보건 관련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다고 한다. 모자보건증 제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모자보건증 시행령에서는 임신부가 임신주수별로 받아야 하는 검사, 조산사 상담, 출산 후 기간별로 영유아인 자녀가 받아야 하는 검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증에도 출산 전 5회 검사, 출산 후 자녀를 데리고 가서 받는 기본 영유아 검사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부모의 건강보험에 연계된 의료진을 통해 의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환급된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본인의 출산 전 5회 검진, 출산 후 자녀의 5회 기본 검진을 모두 완료해야 향후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자녀 양육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검사 목록에는 의무적인 영유아 기본 검진 5회 이외에도 자녀가 약 5살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다른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의 모자보건증 관련 제도 운영에는 매년 약 6천 2백만 유로(한화 약 86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해당 예산의 2/3는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 관련 수당 지급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부담평형기금(Family Burdens Equalization Fund)에서, 나머지 1/3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충당된다. 연방정부는 1967년 가족부담평형기금법이 제정된 이래 자녀 양육, 가족 생계에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본 기금을 운용해 왔다. 여기에는 모자보건증에서 의무로 제시하는 임신부 및 영유아 검진, 가족 상담 센터 지원, 부모 교육,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연금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모자보건증의 명칭은 2024년부터 공식적으로 변경된다. 바로 부모자녀 보건증(Eltern-Kind-Pass)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혁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디지털화다. 현재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모자보건증 개혁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서비스 발전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디지털 오스트리아(Digital Austria)'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를 관장하고 있는 플로리안 툴스키(Florian Tursky) 재무부 차관(State Secretary for the Ministry of Finance)은 앞으로 부모자녀보건증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전부 디지털로 변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해 관계당국,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시설, 조산사 등 수많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시설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데이터 디지털화 사업에는 유럽연합(EU)에서 지원한 1천만 유로(한화 약 138억 원) 가량의 자금도 투입된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6년 중순 정도까지는 모든 데이터 디지털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부모자녀보건증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여러 언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 앞으로는 부모자녀보건증을 분실하더라도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편리하게 의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는 개인 모자보건증상에 수기로 기록을 넣었기 때문에, 모자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검사 및 상담 결과 등을 해당 시설마다 연락하여 문의하고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검진을 시기적절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모자녀보건증 제도에 포함되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서비스도 크게 확대된다. 심리상담, 조산사와의 추가 면담, 추가 초음파 검사, 자녀 양육 상담, 영양보건 관련 상담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향후 추가되는 서비스인 부모 상담은 전국 약 400여 곳의 가족 상담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비단 임신, 출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정부 양육수당 제도, 부모의 시간제 일자리 근무, 일가정 양립 문제, 연금 문제 등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다.

오스트리아 의료인 협회(Austrian Medical Association)는 그동안 지속해서 요구해온 출산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반영한 의료수가가 책정 부분에서 어서는 정부와 협회 간 이견이 남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 예로, 사민당(SPÖ) 페트라 뢰머(Petra Wimmer)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계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민당 내 여성위원회장을 맡은 에바-마리아 홀츠라이너(Eva-Maria Holzleitner) 의원은 추가로 포함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들을 이행할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이행계획 일정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모자보건증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UNITED STATES

페미사이드(femicide)의 심각성 및 법 제정의 중요성 논의

김 춘 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참고자료

- CNN (2021.9.30)"Explainer: what is femicide and how bad is it globally". <https://www.cnn.com/2021/09/30/world/femicide-explainer-as-equals-intl-cmd/index.html> (접속일: 2022.12.7).
- CNN(2022.12.2)"Shanquella Robinson's death is being investigated as a femicide. Here is what it means" <https://www.cnn.com/2022/11/30/us/shanquella-robinson-femicide-explainer-rea/index.html> (접속일: 2022.12.7).
- Global Americans Report(2020)"Femicide and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n epidemic of violence in Latin America." <https://theglobalamericans.org/reports/femicide-international-womens-rights/> (접속일: 2022.12.7).
- Mahalik, J. R, Aldarondo, E., Gilbert-Gokhale, S., & Shore, E. (2005) The role of insecure attachment and gender role stress in predicting controlling behaviors i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 (5), pp.617-631 (접속일: 2022.12.11).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2019)"Global Study on Homicide."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gsn/Booklet_3.pdf. (접속일: 2022.12.7).

페미사이드(Femicide)는 가장 극단적인 젠더 폭력의 형태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사이드는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페미사이드와 비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페미사이드로 나뉜다. 친밀한 사이에서의 페미사이드(intimate femicide)는 여성의 파트너 또는 과거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친밀한 사이에서의 페미사이드(non-intimate femicide)는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살해당하는 명예살인, 여성이 인종 혹은 성적지향 때문에 살해당하는 경우 등이 페미사이드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페미사이드는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CNN, 2021).

페미사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리포트에 의하면 2017년에 87,000명의 여성 및 여아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살해를 당했다고 한다(UNODC, 2018).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페미사이드를 일반 살인(homicide)과 법적으로 구분지어 처벌하고 있지 않다. 멕시코를 포함한 몇몇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만 페미사이드를 일반 살인과 구분지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페미사이드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60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CNN, 2022).

라틴아메리카에서 페미사이드를 법으로 제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지역에서 페미사이드가 다른 지역 혹은 나라에 비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발행하는 페미사이드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사바도르(El Salvador)와 온두라스(Honduras)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는 특히 심각하다(Global Americans Report, 2020).

페미사이드가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주요한 요인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해당 지역의 마초(macho) 문화 혹은 가부장적인 문화이다. 마초문화는 남성의 '남성다움'과 여성의 '여성다움'을 강조하며, 그 문화권 내 여성들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있다(Mahalik et al., 2005). 또 다른 요인은 그 지역 내의 폭력적인 정치체 혹은 사회적인 환경이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리포트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갱활동(gangs)을 비롯한 범죄 활동 및 마찰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러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페미사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젠더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UNODC, 2019).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페미사이드는 비단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페미사이드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범죄 정책 센터(Violence Policy Center)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0년에 2,059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살해당했으며 89%의 가해자가 해당 여성이 알던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전 세계 고소득 국가의 페미사이드 중 70%가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최근 미국인 여성이 여행 중 멕시코에서 살해당했던 사건의 법 집행이 일반 살인이 아닌 페미사이드로 적용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페미사이드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 없기 때문에 페미사이드를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CNN, 2022). 이들은 법 제정을 통해 페미사이드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일반 대중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페미사이드를 일반 살인과 다르게 따로 지정한 법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페미사이드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연방법으로도 상대방의 인종, 종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젠더(gender) 등의 이유로 저지르는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증오범죄법(hate crime law)을 통해 페미사이드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주마다 증오범죄법이 포괄하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혐오나 편견이 증오범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CNN, 2022). 따라서 젠더로 인해 발생하는 페미사이드를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의 학자인 에반스(Evans)는 미국에서 페미사이드 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는 젠더 폭력을 추동하는 해로운 남성성(toxic masculinity), 가부장제(patriarchy), 여성혐오(misogyny)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 자체보다는 페미사이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페미사이드 범죄자를 일반 살인범과 다르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CNN, 2022).

따라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페미사이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페미사이드 법 제정과 함께 페미사이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